

‘황선홍 임시 체제’ 축구협회 또 ‘레전드’ 소방수로 쓴다

2014 흥명보 · 2018 신태용 소방수로 기용해
A대표팀 · U-23 대표팀 성과 내도 본전인 상황
중책 맡은 황선홍 “조금이나마 도움 되겠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위원회)의 선택은 황선홍 임시 체제였다.
현재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에게 임시지만 어수선한 A대표팀까지 지휘하는 ‘소방수’ 역할까지 맡겨 잡음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차 회의를 통해 16일 경질한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의 후임으로 황 감독을 A대표팀 임시 사령관으로 선임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11일 만이다.

임시 사령관을 뽑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 탈락에 선 수단 장악까지 실패한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하며 해산을 약속했다. 새 감독을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거쳐 뽑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1차 회의부터 위원회는 ‘3월 국내 정식 감독’이라는 편향적 이면서도 무리한 계획을 수립했다.

결국 2차 회의에서 ‘임시 감독 체제’로 방향을 트는 등 어수선한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3차 회의 만에 황 감독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황 감독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선수 시절에는 전설적인 공격수로 활약했으며, 지도자로 전향한 이후에는 프로축구 K리그 포항스틸러스, FC서울 등을 이끌며 굵직한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해 막을 내린 2022 한자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대표팀에서도 발자취를 남겼다.

하지만 황 감독이 ‘결직’을 하는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황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올림픽 대표팀은 당장 오는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겸 2024 AFC U-23 아시아



한국 축구 A대표팀 임시감독으로 선임된 황선홍 U-23 대표팀 감독.

컵을 치러야 한다. 지금까지 9회 연속으로 올림픽에 나섰던 한국 축구는 10회 연속이라는 대기록을 노린다.

그런데 이번엔 여느 때보다 본선 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따른다.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UAE)와 한 조에서 경쟁하기 때문이다.

또 올림픽에 가기 위해선 최소 4위를 기록해야 하는데, 조별리그를 통과해도 북병들이 많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령관인 황 감독이 온전히 올림픽대표팀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결직’을 맡게 됐다.

더욱이 황 감독이 A대표팀을 이끄는 기간인 3월 21일, 26일에 U-23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친선경기를 통해 최종 담금질을 할 예정이다.

이에 U-23 대표팀은 황 감독 없이 기존 코치진이 지휘한다. 양 팀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다.

또 한국 축구의 전설을 소방수로 썼다는 점에서도 비난 목소리가 나온다.

축구협회는 지난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메달(동메달)을 땀던 흥명보 울산 HD 감독을 ‘소방수’로 선임했다.

당시 준비 기간이 짧았던 흥 감독은 1무2패로 탈락한 뒤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바 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는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을 소방수로 쓰기도 했다. 신 감독은 독일을 잡는 등의 성과는 냈지만, 1승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A대표팀과 일찍 연을 끝냈다.

이번 황 감독은 월드컵 본선이 아닌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 4차전 태국 홈 앤드 어웨이 두 경기를 맡기는 것이지만, 역시 소방수로 쓴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황 감독의 집중력이 분산돼 A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무엇 하나 성적을 내지 못하면 비판을 받는다.

선수는 물론, 감독도 보호해야 할 축구협회가 두 개의 성과를 내도 본전인 상황으로 황 감독을 내몰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기의 상황에서 중책을 맡은 황 감독은 답답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민국 축구가 위기인데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이 왔을 때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한다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 최선을 다해서 한국 축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황 감독이 임시로 이끄는 A대표팀은 3월 18일 소집할 예정이다.

A대표팀은 3월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3~4차전을 치른다. 3차전은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4차전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스타디움에서 벌어진다. /뉴시스



무주군은 ‘차범근 감독과 함께 하는 2024 리그 붐 in 무주(이하 리그 붐 in 무주)’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팀차범 근 유소년 축구 발전 업무협약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차범근 감독, 참가 초등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차범근과 함께하는 축구교실, 내달 무주서

(차범근 감독)

‘리그 붐 in 무주’ 11월까지... 무주군, 지역 내 초등생 대상 내달 5~7일 84명 선착순 모집

무주군은 ‘차범근 감독과 함께 하는 2024 리그 붐 in 무주(이하 리그 붐 in 무주)’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그 in 무주’는 지역 내 초등학교들이 스포츠 정신과 협동심, 축구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참가비 무료, 셔틀버스 미운행)로 팀차범 근 뜻의 크리에이션이 주최·주관하고 무주군에서 후원한다.

매주 목요일 무주군 무주읍 등나무 운동장에서 진행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라운드가 진행(총 15회)된다. 전문지도자 훈련

도 6회가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모집인원은 총 84명으로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리그붐in무주’를 검색해 채팅방에서 학교명과 학년, 학생과 보호자 이름, 연락처를 남기고 전송하면 된다. 단, 학년별 신청일에만 가능(선착순 마감, 중복신청 불가)하며 접수일시 이전 신청 건은 무효 처리된다.

신청일은 1~2학년 학생(28명)은 3월 5일, 3~4학년 학생(28명) 6일, 5~6학년 학생(28명) 7일로 당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 노상은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지역 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나아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 육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작년 5월부터 팀차범근과 손을 잡고 리그 붐 in 무주를 개최해 오고 있다”며 “차범근 감독을 비롯한 최고의 전문가들과 환경에서 축구를 배우며 즐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K리그1 2024 시즌 개막... 3·1절 전주서 전북-대전 ‘맞대결’

전북, 리그 · FA컵 · ACL 등 참가하는 전 대회 우승 목표

프로축구 K리그1(1부 리그) 2024시즌이 개막한다.

이번 시즌 첫날인 3월 1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전북현대가 대전하나시티즌을 홈으로 초대해 맞대결을 펼친다.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북현대는 K리그는 물론, FA컵, ACL 등 참가하는 전 대회 우승을 노린다.

개막 전 ACL에서 포항을 누른 전북은 다른 팀들보다 먼저 실전 감각을 다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2년 연속으로 ‘라이벌’ 울산에 리그 왕좌를 내어준 전북은 개막전에서 대전을 잡고 목표 달성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전은 올해 4년 차를 맞은 이민

성 감독 체제에서 ACL 진출을 노린다.

김승태, 호사, 이순민, 아론, 강윤성, 이정택 등을 영입하며 전 포지션을 강화해 파이널A(상위 스플릿) 진출은 어렵지 않을 거란 전망이 따른다.

실제 대전은 2023시즌 리그에서 전북을 세 차례 만나 1승2무로 우위를 점한 바 있다. 대전이 전북전 상승세를 이날까지 이끌지 관심이이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